

김연아, 밴쿠버 프로젝트 '강렬함-대중성'

송고시간 | 2009-03-30 07:28













김연아, 밴쿠버 프로젝트 '강렬함-대중성'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우승한 김 연아(19.고려대)가 강렬하고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싶다는 속 내를 밝혔다.

김연아는 3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음 시즌 프로그램 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시즌과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싶다"라고 밝혔다.



김연아는 이번 시즌 프로그램을 결정하면서 팬들의 귀에 익숙한 음악을 선택했고, 더불어 귀여운 이미지를 벗어나 숙녀 로서 강렬한 이미지를 내뿜을 수 있는 안무를 짰다.

김연아는 시니어 무대에 진출하고 나서 쇼트프로그램으로 '록산 느의 탱고'(2006-2007), '박쥐서곡'(2007-2008)'을 써왔고, 프리 스케이팅에는 '종달새의 비상'(2006-2007), 미스 사이공'(2007-2008) 등을 써왔다.

하지만 김연아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배경 음악들이 크게 대중적 이지 않았고, 안무도 발랄함과 아름다움에 집중하다 보니 자신만 의 캐릭터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안무가인 데이비드 윌슨과 머리를 맞댄 끝에 '강렬함-대중성'이라는 카드를 선택했 다.

이렇게 선택한 프로그램이 쇼트프로그램 '죽음의 무도'와 프리스케이팅 '세헤라자데'였다.

김연아는 '죽음의 무도'를 준비하면서 짙어진 눈화장으로 연기력을 돋보이게 했고, 피겨 배경음악으로 여러 차례 사용 됐던 '세헤라자데'를 통해 대중성도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김연아는 두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선수권대회 생애 첫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해냈다.

김연아는 "대중적인 음악을 쓰는게 연기하기도 쉽고 보는 사람들의 인상에 많이 남을 것 같다"라며 "강렬한 느낌의 프로 그램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hom90@yna.co.kr



김연아 "월드컵축구 남북전 보러 가요" 김연아, 밴쿠버 프로젝트 '강렬함-대중성'

<피겨> 오서 코치, 명예의 전당 헌정식 <피겨> 연아 안무가 "소름돋는 연기"









핫뉴스 →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신' 기네스북 등재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3/30 07:28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턴	<u> 1</u> 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u>.</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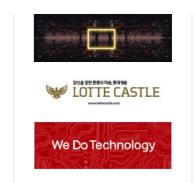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문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57 찰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1 대병원 자원봉사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41 힐 예정"

뭐하고 놀까?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별뉴스 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 앱
 보다시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고,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모맥스 한민족센터 K컬쳐기확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Yonhannev